人間發達硏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85－99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 연구

한 종 혜
대전실업전문대학교 가정관리과

이 연구는 대전시내 국민학교 5, 6학년생 163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우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 11영역 중에서 성별 차가 유의미한 영역은 처벌이었다. 자기역량지각은 성별에 따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성의 다섯 영역 중 자기비난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둘째, 결속력은 학문적 역량·행동수행역량과, 애정은 행동수행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립은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아버지와 아동의 결속력, 애정, 대립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셋째, 결속력은 기분/감정·활기/흥미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협력은 자기비난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학문적 역량·사회적 역량·행동수행 역량지각이 낮을수록 기분/감정·자아존중·활기/흥미 수준이 낮았다.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이 낮을수록 자아존중이 낮았다. 사회적 역량지각이 낮을수록 자아존중이 낮았다. 즉 자기역량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성 수준이 높아졌다.

핵심어 : 사회적 관계망·아동의 자기역량지각·아동의 우울성

아동기 우울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오랜 동안 계속 되어 왔다.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는 아동이 슬픈 감정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초자아의 미성숙으로 우울성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김옥환, 1994).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아동에게도 우울성이 있다는 입장에 일치하게 되었다. 우울성은 유아기를 포함한 어떠한 연령층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울성은 개인의 기질, 성격의 결함, 자극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생기는 정서장애의 경우와,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인지적으로 왜곡된 학습을 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체육청소년부의 "자살행동실태조사"(한국일보, 1992, 9, 21)에 따르면 처음 자살을 생각해 본 시기는 국민학교(20.8%), 중학교(36.9%), 고등학교(18%)였다. 이 조

사에 따르면 우울성의 한 형태인 자살충동이 어려서부터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이 출생 후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다. 부모는 아동의 지적·사회적·정서적·인격적·도덕적 행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차츰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주로 어머니에게 속했던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와의 공동양육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가족화·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여성 취업의 증가, 부부간의 역할분담 변화도 이유가 된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자녀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과 아동의 역량 또는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는 최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용수, 1991)도 매우 적게나마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동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 연구가 꼭 필요하다.

아동기의 우울성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성인이 되어도 재발의 가능이 높다. 자녀교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아동의 우울성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아동의 우울성의 정도를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아버지와 자녀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아동의 건전한 자아개념형성 및 정신건강 유지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관계망

대인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Furman과 Buhrmester(1985), Wiggens(1979)등은 대인관계는 온정뿐 아니라 상대적 능력, 갈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아동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기 다른 사회적 관계를 추구한다(Weiss, 1974). 부모로부터 애정·자아가치증진·믿음직한 도움·조력, 조부모로부터 애정. 자아증진, 교사로부터 조력, 친구로부터는 우의를 구한다. 이렇듯 아동의 사회적 세계는 밀접한 관계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의 아동의 역량지각, 자아존중감 및 우울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특히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김희조, 1994; 박정선, 1987; 심숙희, 1987; 원유경, 1986; 정현희, 1991)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아동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조사한 연구로는(공인숙, 1989; 김선경, 1988; 김선영, 1981; 이경희, 1993; 이숙, 1987; 이병림, 1990; 조혜란, 1985; 정영숙, 1992; 차은영, 1997; 최경순, 1992; 한종혜, 1980; Russel, 1987; Harter 와 Youniss, 1982; Youness, 1980)등이 있다. 이미정(1988)에 의하면 남아는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반응적이고, 친밀한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 제한설정, 합리적인 지도, 친밀감 있는 양육행동 등이 여아의 자기 존중감을 높여 주었다. 김숙경(1986)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정·자율·합리·성취 차원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차은영(1987)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발달 지향적이면 아버지와-자녀간의 활동수준이 증가하였다. 최경순(1992)은 아버지의 자율·애정 행동이 아동의 유능성·지도력과 상관이 높다고 했

다. 또한 아버지의 여가활동·생활지도와 아동의 유능성·지도력·부모에 대한 애정은 상관이 높다고 했다. 이미정(1988)은 남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적극 참여할 때 가장 격려되었고, 여아는 합리적 지도를 할 때 가장 격려되었다고 밝혔다.

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Ogbu(1981)는 역량을 문화적으로 지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Harter(1989)는 역량의 개념을 발달적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아동은 사회화,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치에 대한 견해를 형성한다. Stigler등(1985)은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화권과 인종을 초월하여 자기역량지각의 개념이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연령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Harter & Pike, 1984; Silon & Harter, 1985 : Stipek, 1981 : Ruble, 1980 : Benson & Dweck, 1986)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연령에 따라 발달함을 밝혔다. 특히 8세 이상의 아동은 자신의 역량 중 서로 다른 요인을 구별하며(Harter, 1982 : Ruble, 1980)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치도 갖는다. 공인숙(1989), 김치영(1987)은 아동이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에서는 성별 차가 없고, 신체적 역량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했다. 배기조(1992)는 여아는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지각에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행동수행역량지각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의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였다(Stigler 등, 1985; 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거부 받는 아동은 사회적 역량이 낮다. 친구들 사이에서 거부 받지만 무시되지는 않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평가한 사회적 역량이 동료의 평정치 보다 높았다. 교사의 평가에 의하면 거부적-공격적 아동은 행동적 역량을 과대평가했다. (Patterson 등, 1990) LaFreniere 와 Sroufe (1985)는 아동이 친구관계를 평가할 때는 교사가 그 아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숙경(1986)은 부모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연구를 통해 부모행동 중 애정·자율·합리차원과 남아의 자아존중감간에 상관이 있으며, 부모행동의 애정·자율·성취·합리 차원과 여아의 자아존중감간에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성·연령·어머니의 양육태도·형제자매유무·사회계층·가정환경·인기도 등과의 관계(박범실, 1987; 박웅임, 1988; 심숙희, 1987; 안진석, 1981; 이주리, 1991; 이혜영, 1985; 전경란, 1989; 한성희, 1988)를 본 연구 등이 있다. 이주리(1991)는 가정환경 변수와 아동의 역량지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심리적 환경인 정서적 분위기 변수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만을 조사한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참여도 가정환경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지적했다.

3. 아동의 우울성

Susan 등(1992)은 조사연구 고찰을 통해 일반적인 아동 집단에서도 10%-15%의 아동이 우울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Lefkowitz와 Tesiny (1980)는 정상적인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표집 된 아동의 5.2%-17.4%가 우울성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에도 우울성이 나타나며, 예상보다 그 수가 많음을 시사한다.

배기조(1992)는 여아가 남아보다 매사에 더 불안하고 우울성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옥환(1994)은 우울성에 대한 성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자기역량지각과 우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불안, 고립, 우울성과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가진 비인기 아동은 낮은 자아개념을 가졌다(Patterson등 1990). 자신의 역량에 대해 과소평가 하는 아동은 과대평가 하는 아동보다 불안, 우울성이 높았다(배기조, 1992; Harter, 1987).

국내의 연구 중 아동의 우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성격 및 취업유무 등이 다루어졌다. 김용수(1991)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아동이 우울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장자나 독자인 아동이 차자나 막내보다 우울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아동은 고졸까지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성이 낮았다(김옥환, 1994)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보다 우울성이 유의하게 높았다(이정순, 1993). 정서적 반응이 예민하여 쉽게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기분의 변화가 심한 어머니의 성격과 남아의 우울성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동정심이 별로 없고 자녀에게 둔감한 어머니의 성격은 여아의 우울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옥환, 1994). 우울한 아동은 부모가 거부, 엄격, 불일치, 통제적이며, 성취압력을 강하게 가하는 것으로 지각했다(김용수, 1991).

Dadds(1992)등은 우울한 아동의 부모는 구조화된 과제에서 아동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다. Sanders(1992)등은 가족의 갈등이 아동의 우울성을 높이며, 우울한 행동은 가족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지속된다고 했다. 또한 우울한 아동과 부모는 효과적 갈등해결이나 상호 문제해결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했다.

아동의 우울성과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인기도 및 사회적 역량과는 −0.20에서 −0.38의 상관이 있었다(Fauber 등, 1987 Lefkowitz와 Tesiny ; 1980). Jacobsen 등(1983)의 연구에서는 −0.67의 높은 상관이 나왔다. 또래가 평정한 인기도와 아동의 우울성은 −0.23에서 −0.47(Faust 등, 1987; Lefkowitz와 Tesiny, 1982)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Cole(1990)은 750명의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성과 사회적 역량 및 학문적 역량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박정희(1989)는 우울집단 아동이 비우울 집단의 아동보다 학문적·운동·신체·사회·행동영역 모두에서 자기역량지각 수준이 더 낮았다고 보고했다. Leitenberg(1986) 등은 우울한 아동은 과잉일반화, 선택적 요약,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한 확대 및 극소화, 임의적 추론 등의 부정적 인지적 지각을 좀 더 하는 편이라고 보고했다.

김은정과 오경자(1992)는 아동기 전반에는 슬픔, 무기력 같은 정서적 우울로, 아동기 후반에는 죄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성을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우울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문제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우울성과의 관계를 밝혀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1-1. 아동과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1-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1-3. 아동의 우울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2-1.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2 아동의 우울성과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아동의 우울성과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문항 이해도, 작성 소요시간, 질문지 작성상 문제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에 실시하였다. 대전시내 E국민학교 5학년 한 학급, 6학년 두 학급 1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NRI(198문항)의 양이 많은 관계로 응답 누락이 많았다. 응답율 49.6%로 6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은 대전시내 B국민학교 5학년 한 학급, S국민학교 5학년 한 학급, 6학년 두 학급 180명을 유의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실시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받은 연구 보조원 2명이 참가하였다. 응답누락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조사자가 직접 문항을 읽어주고 이에 따라 응답케 하였다. 질문지는 번호를 매겨 배부하였다. 회수 후 문항누락을 점검, 재방문하여 담임교사의 도움을 통해 완결케 하였다. 총 163부(남 88, 여 75)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 검사

본 연구에서는 Furman(1985)이 제작한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를 예비조사를 거쳐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본 척도는 우의·대립·조력·만족·친밀·협력·애정·처벌·인정·주도권·결속력의 11영역 각 3문항씩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어머니·아버지·교사·친척·친구·형제자매에 대해 각각 묻기 때문에 전체는 19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분야를 전공한 교수 및 시간강사 5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구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0.93였다.

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검사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검사는 Harter(1985)가 제작한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을 예비조사를 거쳐 번안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학문적 역량·사회적 역량·운동적 역량·신체적 역량·행동수행 역량·전반적 자아가치의 6영역 각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분야를 전공한 교수 및 시간강사 5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구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0.67였다.

3) 아동의 우울성 척도

아동의 우울성 검사는 Harter와 Mary Nowakowski(1987)가 제작한 "Dimension of Depression Profi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을 예비조사를 거쳐 번안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기분/감정, 자아존중, 활기/흥미, 자기비난, 자살충동의 5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6문항씩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자신이 우울경향이 높다고 지각하

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분야를 전공한 교수 및 시간강사 5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구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0.67이었다.

4) 인구학적변수

성별, 연령, 형제의 수 ,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학력, 가장 좋아하는 친척,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각 조사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 각 영역의 점수,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아동의 우울성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아동의 우울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해석

본 연구 결과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및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국민학교 5, 6학년 남아 88명 여아 75명이며, 연령은 11-14세이다. 형제 수는 외동 3.9%이며, 한 명 60.0%, 두 명 27.2%, 세 명 이상 7.8%, 무응답 1.1%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국졸 11.1%, 중졸 14.4%, 고졸 38.3%, 대학졸 25.0%, 대학원졸 5.6%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버지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출생순위별로 보면 외동 3.9%, 장자녀 32.8%, 중간자녀 12.8%, 막내 48.3%였다. 형제자매가 둘 이상인 경우 아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친구, 친척도 아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아버지의 연령은 31-40세 33.3%, 41-50세 59.5%, 51-60세 1.1%, 무응답 6.1%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21-30세 0.6%, 31-40세 72.2%, 41-50세 25.5%, 51-60세 6%, 무응답 5.6%였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아동은 41.1%였다.

1. 연구문제별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 각 영역 점수를 t-검증한 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경우는 처벌뿐이었다. 아버지와 아동과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처벌의 경우 남아의 점수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엄격히 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1-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 t-검증 결과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지각 연구는 일관성이 없고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Ford(1982)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다고 밝혔다. Stigler 등(1985)은 남아가 운동적 역량·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이 높다고 밝혔다. 한성희(1985), 이혜영(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역량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치영(1987)은 남아가 운동적 역량·신체적 역량이 높다고 보고했다. 공인숙(1989)은 신체적 역량에서만 남아가 높게 지각했고, 인지적 역량·사회적 역량·전반적 자

표 1-1.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

	남 아		여 아		
	M	SD	M	SD	t값
우 의	8.80	3.14	8.17	2.75	1.33
대 립	5.98	2.57	5.40	2.07	1.58
조 력	9.87	3.20	9.63	3.14	0.48
만 족	11.46	3.37	11.19	3.15	0.52
친 밀	8.45	3.40	8.16	3.13	0.56
협 력	9.13	3.42	8.78	2.96	0.69
애 정	12.29	3.06	12.10	3.04	0.38
처 벌	9.79	2.90	8.30	3.00	3.20**
인 정	10.04	3.32	9.77	3.23	0.52
주도권	8.21	2.82	7.63	2.90	1.27
결속력	12.20	3.28	12.12	3.47	0.16

** $p<.01$ *** $p<.001$

표 1-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

	남 아		여 아		
	M	SD	M	SD	t값
학문적역량	13.81	2.41	13.59	2.12	$0.82^{n.s}$
사회적역량	12.99	2.49	13.06	2.30	$-0.20^{n.s}$
운동적역량	12.93	2.56	13.00	2.65	$-0.17^{n.s}$
신체적역량	12.42	2.52	11.91	2.58	$1.31^{n.s}$
행동수행역량	14.35	2.77	14.77	2.13	$-1.09^{n.s}$
전반적자아가치	12.77	2.70	13.34	2.41	$-1.45^{n.s}$

n.s. not significant

표 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우울성

	남 아		여 아		
	M	SD	M	SD	t값
기분/감정	14.63	2.30	14.38	2.20	.71
자아존중	13.80	2.85	13.45	2.54	.81
활기/흥미	14.42	2.41	14.36	2.10	.17
자기비난	12.93	2.25	13.75	1.70	−2.62**
자살충동	13.19	2.34	14.02	1.94	−2.47

** $p<.01$ *** $p<.001$

아가치에서는 성별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Cause(1987)의 연구에서는 성별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공인숙(1989)은 성별 차가 나타나는 부분이 합산되면서 성별 차가 소거되었을 가능성도 지적하였다. 이주리(1991)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다양한 연령 범주가 포함된 많은 연구가 요청됨을 지적하였다. 차후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실험설계가 요청된다.

〈연구문제 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

t-검증 결과 〈표 1-3〉과 같이 아동의 우울성 영역 중 자기비난·자살충동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자기비난을 더 많이 했다. 일이 그르쳐진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자신을 더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더 화를 냈다.

〈연구문제 2-1〉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는 〈표 2-1〉과 같다.

아버지와의 결속력과 아동의 학문적 역량, 아버지와의 애정과 아동의 행동수행역량은 $p<.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결속력과 아동의 행동수행역량은 $p<.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대립과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아버지와 아동의 결속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문적 역량·행동수행 역량지각이 높아졌다. 이 결과는 가족과 같이 운동하고, 시간을 보내며, 외출하는 등 경험의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역량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주리(1994)의 연구와 상통한다. 또한 아버지와 아동의 애정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수행지각이 높아지지만 아버지와 아동의 대립이 클수록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

표 2-1.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학문적역량	사회적역량	운동적역량	신체적역량	행동수행역량	전반적자아가치
아버지	우 의	−.01	−.20	−.02	−.08	.06	.01
	대 립	−.08	−.02	−.08	−.04	−.19	−.24**
	조 력	−.02	−.10	.04	−.11	.09	.12
	만 족	.01	−.03	.05	.02	.17	.02
	친 밀	−.11	−.12	.03	−.06	.02	−13
	협 력	−.08	−.15	.02	−.11	.00	−.10
	애 정	.02	−.01	.04	−.05	.26**	.01
	처 벌	−.05	−.09	−.03	−.03	−.02	−.13
	인 정	.06	−.07	−.02	−.06	.16	−.01
	주도권	−.03	−.08	.11	−.13	.02	−.16
	결속력	.26**	.08	0.5	0.4	.32***	.11

** $p<.01$ *** $p<.001$

표 2-2.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

		아동의 우울성				
		기분/감정	자아존중	활기/흥미	자기비난	자살충동
아버지	우 의	.08	−.01	.06	−.05	.04
	대 립	−.02	−.14	−.06	−.10	.04
	조 력	.08	−.07	.07	−.14	.06
	만 족	.16	−.07	.06	−.02	.04
	친 밀	.06	−.10	−.10	−.15	.06
	협 력	−.02	−.08	.08	−.25**	.00
	애 정	.14	−.09	.11	−.07	.09
	처 벌	.03	−.04	−.03	−.12	−.06
	인 정	.12	−.11	.07	−.04	−.05
	주도권	.05	−.11	−.01	−.11	.07
	결속력	.25**	−.07	.25**	.08	.01

** $p<.01$ *** $p<.001$

는 낮아진다.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인 경우는 아버지와의 대립과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와의 관계였다. 이미정(1988)은 아버지의 친밀감 있는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했다. Larson(1990)등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아동은 가족구성원이 친구에 비해 자신에게 덜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친밀·우의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상의 상관관계

에 따르면 아버지와 자녀의 애정·결속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문적 역량지각 및 행동수행역량이 높아졌다. 아울러 아버지와 자녀의 대립이 적을수록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결속력을 높이고, 대립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2〉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우울성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우울성과의 관계는 〈표 2-2〉와 같다.

아버지의 협력은 아동의 자기비난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덜 협조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기자신에 대해 더 많이 비난을 했다.

아버지와 자녀의 결속력은 아동의 기분/감정·활기/흥미와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자녀와 아버지와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그들은 일상생활이 행복하고 활기가 넘친다고 지각했다.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와의 결속력이 적다고 느끼면,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가라앉고, 다른 친구들만큼 활기가 없다고 지각했다.

〈연구문제 3〉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아동의 우울성과의 관계

표 3.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우울성과의 관계

	아동의 우울성				
	기분/감정	자아존중	활기/흥미	자기비난	자살충동
학문적역량	.38***	.23**	.37***	.22**	.19
사회적역량	.29**	.37***	.41***	.15	.03
운동적역량	.16	.23**	.33***	.15	−.01
신체적역량	.19	.47***	.16	.08	−.04
행동수행력량	.33***	.38***	.33***	.18	−.06
전반적자아가치	.19	.49***	.23**	.21**	.08

** $p<.01$ *** $p<.001$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우울성과의 상관 관계는 〈표 3〉과 같다.

Cole(1991)의 연구는 동료가 학업적·사회적·신체적 매력·행동역량을 낮게 평가할수록 아동의 우울성이 높았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의 여러 영역과 우울성의 여러 영역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① 아동의 학문적 역량·사회적 역량·행동수행역량은 아동의 기분/감정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자신이 학교 공부를 잘해내고, 친구를 쉽게 만들며, 그 나이에 맞게 잘 처신한다고 평가할수록 일상생활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나 학교공부에 자신이 없고, 친구 사귀기가 어려우며, 하는 일이 그르쳐 질수록 일상생활이 불행하고 슬프다고 지각했다.

② 아동의 학문적 역량·사회적 역량·운동적 역량·신체적 역량·행동수행역량·전반적 자아가치는 아동의 자아존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배운 것을 잘 잊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며, 운동을 잘 못하고, 자신의 생김새가 불만스럽고, 또래에 기대되는 행동을 잘못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이 낮았다.

③ 학문적 역량·사회적 역량·운동적 역량·행동수행역량·전반적 자아가치는 아동의 흥미/활기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학교 과제물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친구 사이에 인기가 없으며, 새로운 놀이도 잘 못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며, 자신이 다른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 또래보다 활기가 없고 기운이 없었다.

④ 아동의 학문적 역량·전반적 자아가치는 아동의 자기비난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문적 역량이나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은 아동일수록 일이 그르쳐진 경우 오히려 더 자신을 비난했다. Lefkowitz(1980)는 우울한 아동의 경우 정적 사상을 외적 원인에, 부적 사상을 내적 원

인에 귀인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는 우울성 척도의 자기비난 항목이 정적 사상인지, 부적 사상인지에 관해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과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아동의 우울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민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와 아동과의 11가지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처벌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남아를 더 엄격히 훈육하였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의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우울성의 다섯 영역 중 자기비난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아가 자기비난 수준이 더 높았다.

2. 1) 아동의 학문적 역량과 아버지와의 결속력, 아동의 행동수행역량과 아버지와의 애정·결속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결속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문적 역량지각과 행동수행지각이 높아졌다. 또한 아버지와 아동간의 애정이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수행지각은 높아졌다.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아버지와의 대립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는 보다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애정을 나누며, 대립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아동의 다섯 우울 영역 중 기분/감정·활기/흥미는 아버지와의 결속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자녀와 아버지와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그들은 일상생활이 행복하고 활기가 넘친다고 지각했다.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와의 결속력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가라앉고, 다른 친구들만큼 활기도 없으며, 대부분 피곤하다고 지각했다.

반면에 아동의 자기비난은 아버지와의 협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덜 협조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아동이 자기자신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했다.

3.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우울성과의 관계

아동자신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잘 처리하고, 친구를 쉽게 만들며, 나이에 알맞게 행동한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을 명랑한 기분으로 보냈다. 그러나 아동이 학교생활에 자신 없어 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며, 잘 처신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 자신이 불행하고, 자주 슬프며, 기분이 저조했다. 배운 것을 잘 잊고,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운동을 잘 못하고, 자신의 생김새가 불만스럽고, 또래에 기대되는 행동을 잘못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이 낮아서 우울수준이 높아졌다. 학교과제물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친구사이에 인기가 없으며, 새로운 놀이도 잘 못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며, 자신이 다른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 또래보다 활기와 기운이 없어 우울수준이 높아졌다.

아동의 학문적 역량·전반적 자아가치는 아동의 자기비난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문적 역량이나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은 아동일수록 일이 그르쳐진 경우 오히려 더 자신을 비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버지와의 결속력·애정·협력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아동을 도와주어 우울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와 보다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애정을 나누며, 대립을 줄여 자녀가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버지 교육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의 우울성에 대한 고찰은 아동의 생활지도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상호관계의 한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동시적 연구이다. 여러 사회화 대행자와 아동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우울성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의 정립이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아동의 우울성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척도와 바람직한 우울대응 행동 지도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선경 (1988). **우울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연 (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숙경 (198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연선 (1993). **국민학교 아동의 우울 및 우울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옥환 (1994). **어머니의 성격차원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수 (1991). **아동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정, 오경자 (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3(1), 117-118.**

김치영 (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희조 (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범실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응임 (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정선 (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인기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희 (1989). **아동의 우울 경향성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기조 (1992). **아동의 역량에 대한 과대, 과소평가와 사회정서지각.**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숙희 (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진석 (1981). **취학전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유경 (1986). **유아의 동료간 인기도와 사회적 성숙 및 어머니 자녀교육관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미정 (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47-61.

이병림 (1990). 아동의 생활 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대 기념교수논문집.**

이 숙 (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아동학회지, 9**(2), 61-91.

이정순 (1993). **가족체계 및 어머니 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우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주리 (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4.

이주리 (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혜영 (1985). **아동의 사회적역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양화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경란 (1989).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영숙 (1992). **가족의 사회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현희 (199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조혜란 (1985). **우울성향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은영 (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미현 (1989). **형제자매구조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행동에 따른 형제자매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성희 (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수용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성희 (1988).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인기도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81-91.

한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nson, J. & Dweck, C. (1986). The development of trait explanations and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Child Development, 57***, 1179-1187.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Cochran, M., & Brassard,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Cole, D. A. (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4), 422-429.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2), 181-190

Dadds. M. R. Mattew R Sanders, Margaret Morris & Margaret Rebgetz. (1992). Childhoo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 I. Behavioral, Affective, and Cognitive Aspects of Family Problem-Solving Interactions, II. An Analysis of Family Interaction Patterns in the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95-513.

Elisabeth M. Marx, J. Mark G. Williams, Gordon C. Claridge. (1992). Depress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78-86.

Fauber, R., Forehand R., Long N., Burke, M., Faust, J. (1987). The relationship of young adolescent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scores to their social and cognitive functioning.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9*, 161-172

Faust, J., Baum, C. G., & Forehand, R. (1985). An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 291-297.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Furman W. & Duane Buhrmester.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87-87.

Harter. S.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06-811.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al scale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Harter, S., & Silon, E. L. (1985). Assessment of perceived competence,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nxiety in segregated and mainstreamed educable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217-230.

Harter, S. & Nowakowski. (1987). Dimension of Depression profi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University of Denver.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 A Life-Span Perspectives. In J. Kolligin and R. Sten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67-97.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Jacobsen, R. H., Lahey, B. B., & Strauss, C. C., (1983). Correlates of depressed mood in norma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29-40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s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

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56-59.

Larson, R. W., Richards, M. H., Raffaelli, M., & Ham, M. (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Early Adolescence : 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1), 92-102.

Lefkowtz, M. M., & Tesiny. (1980). Assessment of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43-50.

Lefkowitz, M. M., & Tesiny, Edward. P. (1982). Childhood depression : A 6-month follow-up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78-780.

Lefkowitz, M. M., & Tesiny, Edward. P. (1985). Depression in Children : Preval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5), 647-656.

Leitenberg, H., Yost, L. W. & Wilson , M. C. (1986). Negative Cognitive errors in children : Questionnaire development, normative data, and comparison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self-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evaluation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528-536.

Lytton, H. (1980). *Parent-child interaction : The socialization process observed in twin and singleton families.* New York : Plenum.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 A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 413-429.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Ruble, D. (1980). Boggiano, A, Fedman, N., Loebl, T., Developmental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self-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05-115.

Russel, G., & Russel, A. (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Stigler, J. W., Smith, S. & Mao, L.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Stipek, J. W. (1981).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Susan Nolen-Hoeksema, Joan S. Girgus, Martin E. Seligman.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05-422.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o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Wigge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a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 A Sullivan-Piajet perspectiv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人間發達研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85－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Father,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Children's Depression

Jong-Hye Ha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ajeon Vocational Junior College

Few researchers have assessed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subject were 163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in Taejeon, Korea.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Furman's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 and Harter's Dimension of Depression Profile(DDP).

1. Among the 11 factors from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Father, boys perceived higher than girls in Punishment. Statistically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mong the five Depression factors, girls perceived higher than boys in Self-Blame.

2-1. Reliable Alliance and Scholastic Competence, Behavioral Conduct, Affection and Behavioral Conduct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Conflict and Global Self-Worth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2-2. Reliable Alliance and Mood / Affect · Energy / Interest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Instrumental Aid and Self-Blame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3. Low level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Depression in children.

Key Words :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 self-perceived competence · depression